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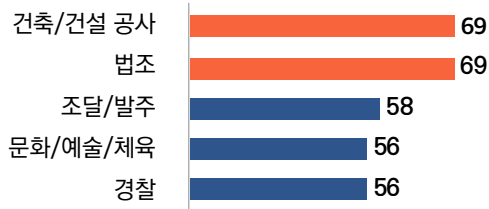
2. 공공/민간 부문 부패 실태



##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, '건축/건설 공사 부문'(69%)과 '법조 부문'(69%)이 가장 높아

-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'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조사' 결과(사업체 종사자 1000명 대상), 공공 행정 분야 중 '건축/건설 공사부문'이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 조사는 NH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실시한 조사결과로 이미 건축/건설 부문의 부패인식이 만연되어 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.
- 행정기관별로는 지방의회가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, 지방의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.

[그림] 행정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(상위 5위) (%)



[그림] 행정 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(상위 5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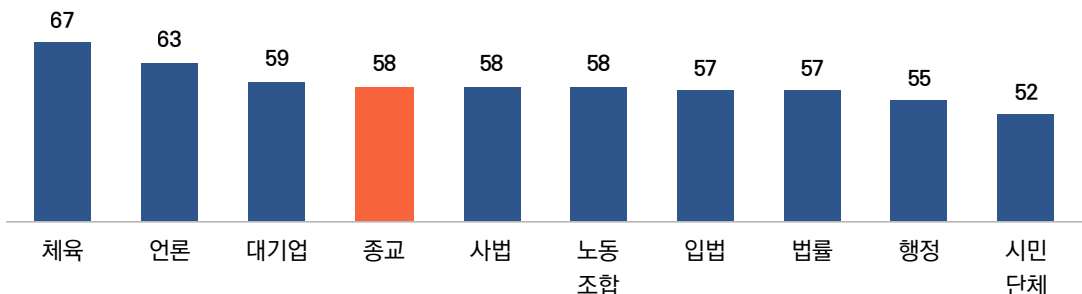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, '데이터로 보는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 실태', 2021.04.06 (전국 사업체종사자, 1000명, 2020.07.30.-09.10)  
 \*\*심각성 : '매우+약간' 비율

### ● 종교 분야, 부정부패 '심각하다' 58%(16개 부문 중 4위권)

- 각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을 살펴보면, 조사대상 16개 부문 중 체육 부문이 67%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인식됐다. 이는 체육 분야의 (성)폭력 비위 행위, 인권 침해 등의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.
- 공직 분야의 경우, 입법/사법/행정 등 3개 모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패 심각성을 지적했다.
- 종교 분야의 부패 인식은 58%로 2019년 50%에서 8%p 증가한 수치로, 전체 16개 부문중 4위권으로 부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(상위 10위) (%)



\*자료 출처 :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, '데이터로 보는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 실태', 2021.04.06 (전국 사업체종사자, 1000명, 2020.07.30.-09.10)  
 \*\*심각성 : '매우+약간' 비율